

아우디, 아마 골프대회

아우디 코리아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하순까지 '제6회 아우디 파워트립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1991년 독일 본사에서 아우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이듬해부터 국제대회로 규모가 확대됐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12일 서울·경기도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5월 하순까지 전국 각지의 최고급 골프장에서 6회의 지역예선과 결선(6월21일) 등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는 20만9천원(부가세 포함). 아우디 고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각 지역 전시장에서 신청 받는다.

BMW, JCW패밀리 출시

BMW코리아가 미니 컨버터블 JCW, 미니 클럽맨 JCW, 미니 50 캐든 JCW 등 JCW(John Cooper Works) 패밀리 모델을 8일 출시했다.

이날 출시된 JCW 패밀리는 성능이 향상된 JCW 엔진키트와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JCW 전용 차량 액세서리가 장착돼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미니 JCW 패밀리에선 트윈스크롤 터보차저가 장착된 직분사 4기통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92마력과 27.6kg.m(오버 부스트시)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가격은 미니 50 캐든 JCW 4천645만 원, 미니 클럽맨 JCW 4천780만원, 미니 컨버터블 JCW 5천150만원(VAT 포함)이다.

현대, 싼타페 신형 출시



현대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싼타페와 베라크루즈의 2011년형 모델을 출시한다.

2011년형 싼타페와 베라크루즈는 기존의 진폭감응형 탬퍼에 비해 개선된 '압력감응형 탬퍼'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주행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2011년형 싼타페(사진)는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비롯해 타이어공기압 경보 장치(TPMS)와 크루즈 컨트롤 등 편의사양을 추가했다.

2011년형 베라크루즈에는 급제동시 후방 차량에 경고를 표시하는 급제동 경보 시스템이 새로 적용됐다.

카 라이프

황사철 차량관리 이렇게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섞인 황사는 자동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車도 방치하면 황사병 걸린다

공기청정기 오염때 수명 줄고 연료 더 소모...가능하면 실내주차

자동차 황사병 예방 10계명

- 한 달에 한 번 공기청정기 점검
- 보디 커버를 활용하라
- 윈도 세정제는 등백
- 물 세차보다 가볍게 먼지털이로
- 나들이 전 필터 점검은 필수
- 무늬만 항균필터...불량필터 주의
- 통풍 레버는 순환모드로
- 차내 흡연 자해행위
- 전조등을 미리 켜라
- 기상정보 최대한 이용

에서 반드시 교체해주는 것이 약취 예방에 효과적이다.

황사가 날리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창문을 닫고 운전한다. 이때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흡연을 하면 차내 필터를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필터의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은 삼가는 게 좋다.

황사가 잦을 때 주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가급적 실내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차 전면이나 앞부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부득이 외부에 주차된 경우에는 황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려고 평소와 같이 먼지털이 도구를 이용해 문지르게 되면 중금속이 섞인 모래알로 인해 외부 도장이 손상되기 쉽다. 따라서 가급적 전문 세차장에서 물로 세차해야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도장 손상을 막을 수 있다.

황사먼지가 전면부 유리에 쌓일 경우에 대비해 워셔액도 충분히 채워놓는 것이 좋다. 앞 유리에 황사가 덮여 있다고 와이퍼를 무리대고 작동했다간 유리창과 와이퍼 고무가 손상되기 쉽다. 워셔액이 충분히 분사되도록 와이퍼 작동 레버를 당겨야 한다.

세차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황사로 인한 산성비도 차체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세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황사는 모래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표면에 붙은 모래를 물걸레로 씻어내면 곤란하다. 알갱이가 차에 생채기를 낼 수 있어서다. 따라서 가급적 털이개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 낸 뒤 전문 세차장에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요령이다.

또 자동차 표면에 왁스가 칠해 황사가 늘어붙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아차 오토큐 동광주서비스 문병일 대표는 "에어필터는 사람으로 말하면 호흡기와 같아 막히면 답답하고 쉽게 지친다"며 "에어필터가 오염되면 배출가스 과다·엔진출력 저하·연비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angju.com

셀프 주유 직접 해보니...

“싸고 편하고 재밌어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기름값 탓에 셀프주유소가 뜨고 있다.

올 초 ㄹ 당 1천618원하던 광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주유소가격 정보시스템 오픈넷)이 지난달 19일 1천700원선을 넘어섰더니 이달 7일 1천710원을 기록, 올들어 무려 92원이나 올랐다. 자동차용 경우 ㄹ 당 1천482원으로 1월1일 1천412원보다 70원 인상됐다.

이같은 고유가 탓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직접 주유하기엔 엔지니어와 함께 작업 중인 한 셀프주유소를 찾아 직접 주유에 도전해 봤다. 의외로 간단했다.

먼저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한 다음 주유구를 열고 차에서 내린 다음 주유기에 다가서면 터치스크

린 방식의 LCD모니터가 있고 안내 문구에 따라 유종과 결제방법, 주유금액을 선택하고 주유를 시작하면 된다. 별다른 요령은 필요 없다. 은행 ATM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금이나 주유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무실에 가서 주문하면 그 액수만큼 충전해 준다. 그런 뒤 곧바로 주유하면 된다.

셀프 주유의 가장 큰 장점은 기름값이 싸다는 것. 동림동 셀프주유소의 경우 ㄹ 당 1천689원, 인근 일반주유소 1천719원보다 ㄹ 당 30원이 저렴했다. 셀프 주유는 최소 2천원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주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주의할 점은 주유 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주유 후 기름이 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유가 탓에 셀프주유소가 뜨고 있지만 직접 하려고하면 멋쩍고 두렵다. 하지만 한 번 해보면 의외로 쉽고 재밌었다. 최현배기자 choi@

중고차 사고 팔 때도 신용카드

SK엔카-삼성카드 제휴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는 삼성카드와 제휴를 맺고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할 때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엔카 결제도우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카드를 소지한 구매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SK엔카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개인 소유의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구매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카드회사가 제공하는 할부 및 최대 100만원의 세이브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SK엔카는 또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5월 말까지 모든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계약서류 확인, 계약서 작성, 압류 및 저당 확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은품으로 불스왑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SK엔카 직거래센터(1577-978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ncar.com)를 참조하면 된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다들 잘 못하니까

편안합니다

귀가 편안해집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62 www.kjw.com

기기로는 보청기에 못하면 귀를 막고 싶을 때 드르세요~